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 금주에는 “늦기 전에 해라. 늦기 전에 해라.”

- 이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해 주겠습니다.

1. <부지런히 사는 자>가 늦기 전에 행하고, 인생 더 늦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다.

2. <부지런한 자>는 ‘빨리하는 자, 제때 하는 자’ 다.

3. <게으른 자>란 ‘행하지 않는 자’ 다.

4. <게으른 자>는 행하여도 늦게 행한다. 어차피 행할 것이면, 빨리 행하여라.

5. 게을러서 자기 복을 뺏기고, 가난하게 된다. <육>으로도 가난하게 되고, <영>으로도 가난하게 된다.

6. 게으르면, 그 영향이 육신뿐 아니라 ‘영혼’ 까지 간다.

7.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대면서 안 한다. <게으른 주관, 게으른 철학>을 이유로 들면서 안 하고, 해도 “빨리 행하나, 늦게 행하나 하기만 하면 된다.” 하며 늦게 행한다. 그러나 그때는 <먼저 행

한 자>가 ‘좋은 것’ 을 이미 다 사서 가 버린 후다.

8. <알파의 시간, 처음 시간, 처음 신앙, 처음 것>을 뺏기지 않은 자가 ‘부지런한 자’ 다.
9. <게으른 자>는 ‘게으름’ 으로 인해 땅에서도 ‘사망권’ 에 처해 살고, 그 영도 ‘사망권의 삶’ 을 살게 된다.
10.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습관, 버릇’ 을 들이기에 달렸다.
11. 무엇이든지 ‘60일’ 정도 계속하면 습관이 든다. <뇌>도, <생각>도, <지체>도 ‘습관’ 이다. <부지런한 것>도 마찬가지다. 60일 정도 부지런히 행하면, 부지런해진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
12. <좋은 것>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은 버려라.
13. <습관>이 되면 쉽다.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을 들이니 때가 되면 일어나지고, 교회에 가고 싶어진다. 이는 ‘좋은 습관’ 이다. 새벽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말씀을 안 듣는 것이 편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전해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야 더 많이 깨달아진다.” 하고 이유를 낸다. 이는 ‘잘못된 습관’ 이다. 비교할 때는 항상 ‘원리, 원칙, 절대성’ 에 대고 비교해야지, ‘자기 생활’ 에 대고 비교하면 안 된다.

14. <새벽예배>도 ‘습관 들이기’에 달렸고, ‘생각’하기에 달렸다.
15. <잘못된 습관>을 들이지 말아라.
16. <지도자, 교역자>에 따라 교인들이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한다. 고로 지도자들, 교역자들이 습관을 잘못 들이면 큰일 난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해라.
17. 성경에서 말하기를,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자가 된다.” 했다. 이같이 몸이 부지런한 자가 ‘신앙의 재벌’도 되고, ‘물질의 재벌’도 된다. 그러나 <큰 자>는 ‘하늘’에서 난다.
18. 잘못된 습관을 다 없애 버려라. <습관>이 나중에는 ‘돌담장’이 되고, ‘성’이 된다.
19.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하게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어렸을 때 부지런한 자는 커서도 부지런하다.
20. <하나님과 일체 된 자>는 부지런하다. 왜? 하나님은 신적으로 움직이시니, 하나님과 일체 된 자는 숨 가쁘게 뛰어다니고 날아 다닌다.
21. <무조건 빨리하고 일찍 하는 자>는 ‘부지런한 자’다.

22. <할 일을 놓고 미루는 자>는 ‘게으른 자’ 다.
23. 성경의 잠언대로 말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즐자.” 하는 자가 게으른 자다.
24. <게으른 자>는 하면 되는데 안 한다. 게을러서 안 하고, 혹은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서 물려 갈까 봐 안 간다. 들에 가면 뱀이 있어 물까 봐 못 간다. 농사는 잡초 때문에 겁이 나서 안 한다.” 하며 각종 이유를 대고 안 한다.
25. <희망이 있는 자>는 얻기 위해 부지런해진다.
26.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부지런해진다.
27. <하나님의 뜻을 두고 안 하는 자>는 ‘게으른 자’ 다.
28.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는 자>는 ‘목적’ 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행한다. 그리고 행해야 만족하고,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부지런히 행한다.
29. <시대 신부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뜻을 펴고, 사랑의 역사를 펴기 때문이다.
30. <사랑>은 ‘불’ 이다.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져 나간다. 그래서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감당할 수 있다. 이같이 <사랑>도 그러하다. <사랑에 불이 붙은 자>는 무섭게 뛰고 달린다. 모든

것도 ‘불’이 붙으면 빨라진다.

31. <차의 엔진>도 뜨겁게 열을 낼수록 빨라지듯이, <사랑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빠르게 뛰고 달린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는 신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행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늘 말씀하시기를, “초를 두고 다뛰라.” 했다.

32. <환경>에 따라 게을러지기도 하고, 부지런해지기도 한다.

33. <시장>에도 일찍 가야 ‘좋은 물건’이 많지, 늦게 가면 없다. <좋은 물건>을 사려면, 싸전 병아리같이 부지런해야 된다. 이러한 법칙과 이치를 알고, 하늘의 역사도 깨달아라. <법칙과 이치>는 동일하다.

34. 솔로몬은 부지런한 자였다. 고로 부지런한 만큼 하나님의 잠언을 받았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잠언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겪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잠언을 못 받는다.

35.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부지런함에 해당되는 잠언’을 주셨다. 겪은 대로, 행위대로 받는다.

36. 게으르면 ‘게으름에 해당되는 잠언’을 받는다.

37. 자기가 행한 대로 느끼고, 받고, 이야기한다.

38. <게으른 자>는 ‘늦여름’에 씨 뿌리고, ‘겨울철’에 추수한다.
39. <부지런한 자>는 ‘초여름’에 씨 뿌리고, ‘가을’에 황금벌판을 이뤄 놓고 추수한다.
40. <게으른 자>는 마음 밭에 ‘잡초’만 무성하다.
41. <부지런한 자>는 ‘문전옥답’을 차지하고, 황금물결이 치게 한다.
42. 섭리사의 <문전옥답>은 ‘하나님의 궁, 월명동의 주변 지역’이다. 하나님의 궁 주변에 우리가 거할 곳을 차지했다. <부지런한 자>가 차지한 것이다. <주>는 부지런하니, ‘주의 손’에 잡혔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주셨다.
43. 하나님은 ‘부지런한 하나님’ 이시다.
44. 장돌뱅이같이 돌아다니고 쫓아다녀야 볼 것도 보고, 얻을 것도 얻고, 먹고 누린다.
45. 앉아서 천 리를 보려고 하지 말고, 가서 보아라. 너희 생각과 다르다.
46. 부지런히 살아야 좋은 것을 얻는다.

47. <게으른 자>는 ‘좋지 못한 것’ 만 청소해 간다.

◎ 말씀 마쳤습니다.